





07 (나)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 정유형 어미를 반복한다. (나(맛) 구자, 나(맛) 구자, 나(맛) 구자)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다. (나(맛) 구자, 나(맛) 구자)
- 한 행을 두 번씩 끊어 읽는다. (오(음)보(음)보)
- 다양한 비유를 감각적으로 사용한다. (나(맛) 구자, 나(맛) 구자)
-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절을 반복한다. (나(맛) 구자, 나(맛) 구자)

08 (가)에 각각 나타난 비유의 방식이 쓰인 노래말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누군가 대답하듯 : 이인
  -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 두었던 마음 : 유형
  - 별빛 아래 잠든 난 마치 온 우주를 가진 것 같아 : 자유
  - 우리 마냥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 A=B 유형
  - 안성은 화전목마 / 우리 매일 달려가 / 인제쯤 끝난 날 잘 몰라 : 소코코도 외 회전목마

0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하얀 들꽃'은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을 떠올리게 해.
- '별', '꽃'과 같은 시어를 통해 말하는 이의 가치관을 표현하는구나.
- '나'는 '꽃'이나 '별'과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다기와 주기를 바라는구나.
- '나'는 상대방의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구나.
- '환히'를 '화안히'로 돌려 씌으로써 들꽃이 가슴에 밝고 포근하게 안기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구나.

10 제시된 시 중 (다)의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말하는 이가 드러나는 것은?

- 나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나의 길 새로운 길 - 윤동주, <새로운 길>
-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 옥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땀 흘려서 /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늘 - 심훈, <그날이 오면>
-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나는 찬바람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속 재를 해도 /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 소리 타박타박 / 안 들리네, 어둠과 무서워 - 기형도, <엄마 생각>
-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 이야기 지출대는 실 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열목백이 황소가 금빛 게으른 물음을 우는 곳 /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

11 '별'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다)의 3연에서 '나'가 소망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조건>  
'별'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비밀한 꿈을 위해 온  
따뜻하고 순한 꿈을 갖고 싶어 한다.

12 (다)의 운율 형성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있을까, 갖고 싶다'를 반복하였다.
  - 각 연의 종결 어미를 하(하)로 통일하였다.
  - 연과 2연에서 비슷한 구조를 반복하였다.
  -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 구조를 이룬다.
  - 침하고 강변한 두 강을 जो는 시어를 반복하였다.

- 13 (다)의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떠올린 과정으로 적절한 것은?
- 연약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니 '아기'는 어떨까?
  - 지졌을 때 따뜻하게 감싸 주니 '이불'이 어떨까?
  - 화려한 때는 한순간의 존재이니 '불꽃'이 어떨까?
  - 관심을 갖고 보살피야 하니 '반려동물'이 어떨까?
  - 흔히보이는 어우러지는 것이 좋으니 '바람'이 어떨까?

14 (다)에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한 주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 <조건> : 비밀, 바람, 나(맛) 구자, 나(맛) 구자
- 표현 효과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쓸 것
  - 표현 효과는 '~ 때문에 독자는 ~다' 형식으로 쓸 것

(1) 표현 방법: 비밀  
(2) 표현 효과: 비밀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독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틸털과 미틸은 행복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어요.  
"안녕! 우리들은 너희 집에 사는 행복들이야.  
나는 건장의 행복!"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자, 모두가 조조대기 시작했어요.  
"나는 맑은 공기의 행복!"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복!"  
"나는 봄의 행복!"  
아이들의 말을 듣고, 틸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우리 집에 행복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럼! 우리들은 늘 사람들 곁에 있어. 사랑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그때, 영미를 닮은 아름다운 부인이 틸털과 미틸을 부르며 달려왔어요.  
"난 '영미'의 행복이란다.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이지. 그래서 난 늙지 않고 항상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란다."  
틸털과 미틸은 '영미'의 행복에게 안겨 물었어요.  
"여기에 파랑새가 있나요?"  
"여기는 행복이 넘쳐 나는 곳이라서 파랑새가 필요 없단다." (중략)  
틸털은 영미가 깨우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어찌 된 일인지 빛의 요정도, 모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방문을 열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파랑새를 부탁한 요술쟁이 할머니와 너무나 닮았지요.  
"나는 이곳집에 사는데, 새를 빌리러 왔단다. 앗! 아누운 내 땀이 새를 갖고 싶어 하거든."  
틸털은 새장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파랑새! 그렇게 찾았는데,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어!"  
틸털은 파랑새를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다음날, 이웃집 할머니를 따라 여자가 찾아왔어요.  
"고마워, 파랑새를 보고 아픈 게 다 나아."  
빛의 요정을 꼭 닮은 여자가 파랑새를 안고 말했어요.







